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홍보전략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22
FAX 044-287-6029

발행일 2019년 8월 10일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19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전년동기대비 207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0.1%p 증가한 60.5%, 실업률은 0.2%p 증가한 4.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40대를 중심으로 고용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대 후반 연령층도 올해 들어 고용둔화 흐름이 나타나며, 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직 위주의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한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의 기저효과, 15~64세 인구 증가,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 서비스업의 일부 개선에 힘입어 2019년 하반기 취업자는 221천 명, 2019년 연간으로 2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19년 상반기 취업자 수(1~6월 평균)는 전년동기 대비 207천 명 증가해 2018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총량 면에서의 개선은 지난해 기저변동과 함께 15~64세 연령층 인구가 2018년과 달리 증가하고 있는 것과, 예년보다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이 1개월 빨리 시작되고 규모 면에서도 확대된 데에 힘입은 개선인 측면이 크다. 지난해와 달리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30~50대 고용은 둔화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문별로 보

면 경기침체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6천 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실업자가 35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예년보다 빠른 1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은 영향이다. 청년층 실업자도 8천 명 증가했지만, 이는 공무원 시험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시험과 무관한 달에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만 명 증가하면서 둔화된 모습이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난 관계로 '육아 및 가사'가 134천 명 감소하였고, 재학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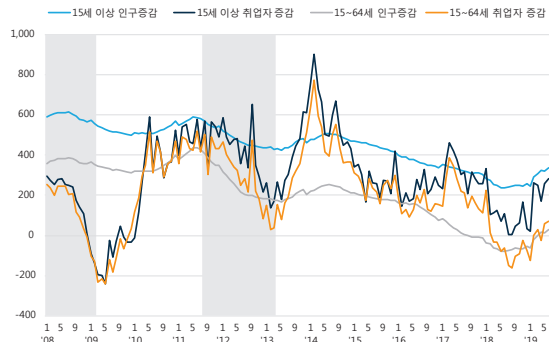
2019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07천 명 증가

'육아 및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감소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인구 증감 추이 (15세 이상 및 15~64세)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중심으로 졸업상태의 20대 자의 고용률 감소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2017. 1~6	2018. 1~6	2019. 1~6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	43,859 (-338)	44,115 (-256)	44,418 (-304)
	경제활동인구 (증감)	27,628 (-390)	27,794 (-167)	28,067 (-273)
	취업자 (증가율)	26,509 (-1.4)	26,651 (-0.5)	26,858 (-0.8)
	(증감)	(-360)	(-142)	(-207)
	(남성)	(-173)	(-30)	(-43)
	(여성)	(-187)	(-112)	(-164)
	고용률 (남성)	60.4 (-71)	60.4 (-70.7)	60.5 (-70.3)
	(여성)	(-50.3)	(-50.5)	(-50.9)
	실업자	1,118	1,143	1,209
	실업률 (남성)	4 (-4.1)	4.1 (-4.1)	4.3 (-4.4)
(여성)	(-4)	(-4.1)	(-4.2)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6,231 (-52)	16,321 (-89)	16,351 (-31)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	36,867 (-47)	36,806 (-61)	36,803 (-3)
	고용률 (남성)	66.3 (-76)	66.5 (-75.9)	66.5 (-75.4)
	(여성)	(-56.5)	(-56.9)	(-57.4)
	취업자 (증감)	24,457 (-276)	24,461 (-5)	24,463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영향으로 '정규교육기관 통학'도 171천 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쉬었음'과 '취업준비'는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큰 전년 동기대비 각각 188천 명, 79천 명 증가하였다.

II.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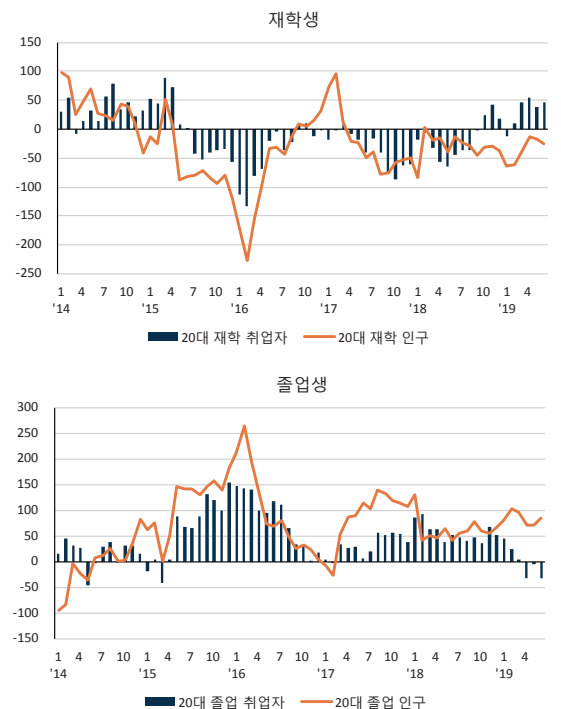
1. 재학생 중심의 청년층 취업자 증가

2018년에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이 대규모로 시행된 청년 고용보조금 사업과 청년이 많이 진입하는 업종들의 고용호조에 힘입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고용률 개선이 나타난 바 있다. 반면에 20대 초반 이하 고용률은 크게 감소했는데, 올해는 20대 초반 이하 고용률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반면, 20대 후반 고용률은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상태별로 20대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자는 30천 명 증가하고, 20대 졸업생(중퇴 포함) 취업자는 1천 명 증가에 그쳐 재학생 중심으로 20대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은 교육서비스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 졸업생은 제조업(-55천 명)과 금융보험(-27천 명) 등에서

[그림 2] 20대 졸업여부별 취업자 및 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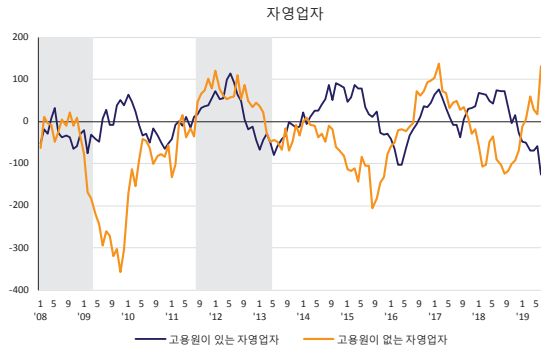


주: 재학생은 상급학교의 재학 중과 휴학 중을 포함함. 졸업생은 중퇴생(직전 학교에 포함)을 포함하며 상급학교 재학생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 단시간 근로자 증가

2018년부터 나타난 취업시간의 빠른 감소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3월 이후 53~68시간 일한 근로자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50만 명 내외의 감소를 이어가고 있으며, 45~52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비슷한 시기 감소하기 시작, 최근에도 20만 명 내외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15시간 미만 및 15-3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이래 빠르게 증가폭이 커져 왔다.

청년층 중심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2019년 1~5월 기준 36시간 미만 일한 단시간 임금 근로자¹⁾는 전년동기대비 39만 명 증가했다. 그중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취업자는 112천 명 증가했는데, 주로 청년층,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15시간 이상 35시간 일한 임금근로자는 276천 명 증가했는데, 청년층보다는 50대 연령층에서 1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15~35시간 근로자 증가

이와 같이 취업시간이 긴 쪽은 감소하고 짧은 쪽 중심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30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및 경기둔화의 영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주휴수당 회피 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생산직 위주의 제조업
 고용 감소 지속

[표 3] 실제 취업시간별 15~64세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증감)

		15시간 미만	15~35시간	36~51시간	52시간 이상
전체		112	276	271	-504
성별	남성	44	99	254	-360
	여성	68	177	18	-14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	170	473	-356
	임시직	62	70	-173	-136
	일용직	41	36	-29	-12
연령	15~29세	69	48	-31	-56
	30대	7	37	72	-156
	40대	14	45	22	-158
	50대	14	99	121	-84
	60~64세	8	46	87	-50
산업	제조업	9	28	-10	-115
	300인 미만	9	28	-11	-92
	300인 이상	0	0	1	-23
	건설업	12	10	44	-44
	도소매업	13	47	62	-114
	숙박음식점업	41	52	-4	-32
	보건·사회복지	3	59	86	-26
	나머지 업종	36	81	94	-174

주: 1) 15~64세 임금근로자 기준 주 근무지의 실제 취업시간을 대상으로 함.
 2) 2019년 1~5월 평균(2018년 6월 지방선거실시 관련 분석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제조업 고용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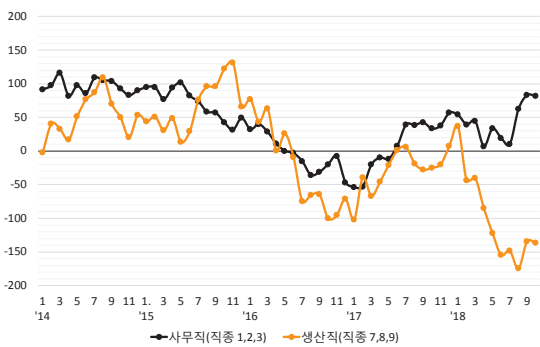
제조업은 1월을 저점(170천 명 감소)으로, 이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자 감소(상반기 -130천 명)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분기 71.8%, 2분기 72.2%로 전년동분기대비 각각 1.0%p, 1.7%p 하락한 모습이며 이에 따라 생산직 위주로 고용이 감소(-151천 명)하고 있다.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시적 생산수요 대응 목적으로 활용되는 임시직 감소(-72천 명)가 컸다. 반면 화이트 칼라 직업군 고용(44천 명 증가)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 아직까지 제품개발, 마케팅, R&D 등 본사기능이 크게 축소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 생산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 포함)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서 생산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고용도

1) 조사대상주간 중 주 근무지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 노인일자리 영향받는 고령층은 제외.

[그림 5] 제조업 전체 사무직 생산직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서서히 회복세가 관찰되고 있다. 가정간편식(HMR) 성장세가 있는 식료품 제조업은 고용상황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 기계 등 관련 산업의 업황 침체 영향이 있을 1차 금속, 금속가공,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둔화된 모습이다. 전자부품 제조업(반도체 포함)은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 부품 등의 국내 생산이 감소세에 있어 고용 또한 둔화된 모습이다. 고용 면에서 과급력이 큰 기계 산업은 반도체 설비투자 등 기계류 투자(1분기 -20.9%, 2분기 -9.2%),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수주(1분기 -2.8%, 2분기 -0.6%) 모두 감소 국면에 있어 고용도 성장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서비스업 고용 개선

서비스업은 전년동기의 증가폭(72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267천 명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 추세가 올해 들어 개선되고 상용직 증가폭이 커지고 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보건사회복지(83천 명), 공공행정(54천 명)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260천 명 증가), 직업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감소하던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2019년 상반기에는 각각 10천 명, 54천 명 증가로 돌아섰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과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가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저 영향을 받고 있는 교육서비스업(38천 명), 부동산업(27천 명)도 증가를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19년 상반기 161천 명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83천 명 증가했고, 70대 이상 임시직 취업자가 39천 명을 차지해 노인일자리아업 확대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54천 명)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이 1분기 7.3%, 2분기 3.5%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상반기 20천 명)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반영으로 보인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상반기 50천 명 취업자 증가했으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종사자 수도 꾸준히 3만 명대 증가를 유지 중이다. 대기업 본사, 회계 법무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2분기 16천 명)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내수서비스 부문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10.9%)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근 취업자 증가 전환하였고 도소매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은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25천 명 증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으나, 2019년 2월 증가로 전환한 후 최근 증가폭(2분기 56천 명)을 늘리고 있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콜 음료점업 생산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2018년 1분기 6.6%, 2019년 1분기 11.5%), 국민계정상의 가게 음식·숙박 관련 최종소비지출²⁾이 2017년 4분기(4,540억 원 증가) 이후 2018년 3분기(240억 원 증가)까지 둔화되었다가 2018년 4분기(7,890억 원)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도 양호하게 증가(4월 30만 명, 5월 25만 명)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산업 고용 증가에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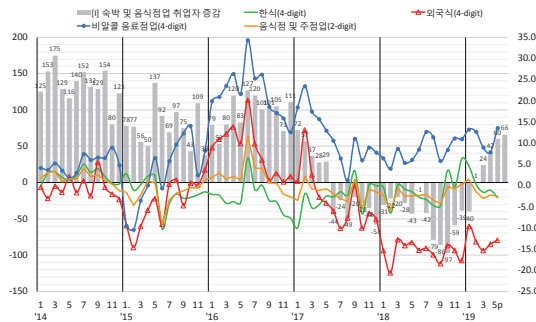
전기, 전자, 금속, 기계 등 전반적 제조업 부진

노인일자리아업 확대 조기 시행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대폭 증가

2) 실질, 원계열, 2015년 기준.

[그림 6]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및 음식점·주점업 생산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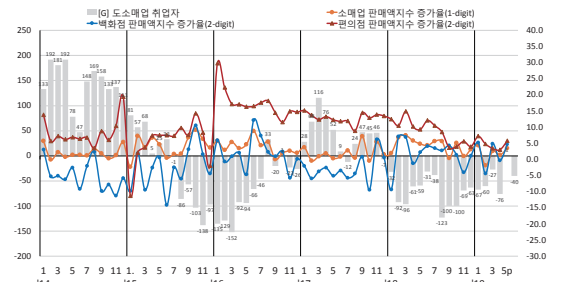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그림 7]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및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숙박 및 음식점업 서서히 회복세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9년 상반기 49천 명 증가로 개선된 모습이나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 부분이 단시간 근로³⁾에 해당한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8년 3분기(-156천 명)에 비해 고용 감소폭을 크게 줄이면서 나아진 모습(1분기 57천 명 감소, 2분기 17천 명 증가)이나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고용이 감소(-45천 명)했다.

소매판매는 면세점(1분기 26.5%, 2분기 25.5%), 무점포소매(1분기 13.5%, 2분기 14.2%)에서 크게 증가했고, 편의점(1분기 5.1%, 2분기 3.8%)에서는 기존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고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세점, 온라인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은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2017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임대서비스업 고용은 2018년 3분기 큰 폭으로 감소(-116천 명)했다가 2019년 상반기 들어서 어느 정도 감소폭을 줄인 모습(-41천 명)이다. 단순노무, 서비스직 감소폭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면서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업(-36천 명)과 공공행정(-20천 명)은 지난해 기저를 반영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고, 반대로 교육서비스업(38천 명)과 부동산업(27천 명)은 지난해 기저를 반영한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다.

<표 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7. 1-6	2018. 1-6	2019. 1-6
서비스업	293	72	267
도매 및 소매업	58	-62	-45
운수 및 창고업	-35	2	11
숙박 및 음식점업	30	-24	25
정보통신업	17	30	54
금융 및 보험업	-7	49	-36
부동산업	65	-20	27
전문·과학 및 기술	7	-9	50
사업시설관리 등	-21	-24	-41
공공행정·국방	33	74	-20
교육서비스업	77	-85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67	99	161
예술·스포츠	23	27	19
협회 및 단체, 수리	-15	32	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7. 건설업 취업자 둔화

건설 경기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수주가 2017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었고 2019년 1분기 4.2%, 2분기 4.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기성액(경상)이 2018년 3분기부터 감소(-5.7%)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국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 역시 2017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둔화세를 이어가

3) 일시휴직자 제외 주일(주업) 실제 취업시간 기준 2019년 상반기 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44천 명 증가.

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4천 명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에도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⁴⁾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업업황 부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II. 2019년 하반기 고용전망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2018년 완전한 둔화흐름에서 총량 면에서는 개선된 모습이나 부문별로 보면 경기둔화의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기저와 올해 초부터 나타난 인구 증가세, 노인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30~50대 고용은 여전히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제조업 고용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서비스업 또한 증가폭 자체는 커졌으나,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나타나는 증가를 제외하면 지난해 기저변동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청년 선호업종이나 정작 청년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점에서 개선세가 견조하다고 평가하기엔 어려모로 부족한 모습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제조업 생산과 고용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조선업 경기가 서서히 회복흐름에 있으나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및 전기, 1차 금속, 금속가공, 기타 기계 등 다수의 산업에서 생산둔화 영향으로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주요 산업의 수출 및 생산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⁵⁾이 나오고 있으며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성장세 향방, 일본 무역제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에서는 2019년 들어 고용개선이 나타나

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기인한 수요 증가와 일자리사업 확대 영향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 중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선호 변화나 외국인 입국회복, 가계소비 증가 등 실물적 흐름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숙박음식점업,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고용흐름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도 다소간의 서비스 고용개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부문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반기 고용은 지난해 급격히 둔화된 기저의 영향으로 수치상의 개선이 일부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고용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은행(2.2%), KDI(2.4%)를 비롯해 OECD(2.4%), IMF(2.6%) 등 국내외 여러 전망 기관들 모두 하반기 경기둔화 지속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망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발표되었고 가장 최근인 7월에는 기존 전망치에서 0.3%p 가량 하향 수정하였다. 민간소비(2.3%), 수출(0.6%) 등 수요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둔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고 설비투자(-5.5%)나 건설투자(-3.3%)는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각각 2.3%, -1.3%)을 예상했지만 연간으로는 부진한 흐름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9년 하반기 취업자는 221천 명, 2019년 연간으로는 2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97천 명)의 기저효과와 연초부터 나타난 15~64세 인구 증가의 영향,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개선세를 반영한 것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연간 각각 0.1%p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기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마찰의 향배,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제외, 세계 경제의 점차적인 위축은 하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금융, 재정정책은 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감소하던 15~64세 생산가능인

건설 경기 및 고용의 동반 둔화 전망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었으나 견조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모로 부족한 상반기 고용

제조업 고용 빠른 회복이 힘든 상황

대내외 기관들의 낮은 경제전망치 발표

2019년 하반기 취업자 221천 명, 2019년 연간 214천 명 취업자 증가 전망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년 하반기 건설수주 -13.3%(연간 -5.8%), 건설투자 2.2%(연간 -4.1%) 전망.

5) 산업연구원(2019.7), 『2019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전망』.

〈표 5〉 2019년 하반기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2.8	2.5	2.7	1.9	2.4	2.2
15세 이상 인구	44,115	44,250	44,182	44,418	44,556	44,487
경제활동인구	27,794	27,996	27,895	28,067	28,212	28,144
경제활동참가율	63	63.3	63.1	63.2	63.3	63.3
취업자	26,651	26,993	26,822	26,858	27,214	27,036
(증가율)	0.5	0.2	0.4	0.8	0.8	0.8
(증감수)	142	53	97	207	221	214
실업자	1,143	1,004	1,073	1,209	1,008	1,108
실업률	4.1	3.6	3.8	4.3	3.6	3.9
고용률	60.4	61	60.7	60.5	61.1	60.8
비경제활동인구	16,321	16,253	16,287	16,351	16,335	16,343

주: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2019.7), 「경제전망보고서」.

향후 고용지표 해석에
인구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함

구가 상반기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증가세가 저점에 있어서 인구효과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
 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향후 고용지표를 해석함